

2021년 세계 청년 학생 기도회

“희망의 하나님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고
세계의 고통을 변화시켜주소서”

*“God of hope,
may your life-giving
rivers overflow and
transform our
suffering world”*

2021.4.18.일
오후 4시
경동교회 예배당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KSCF
NCCK 청년위원회
경동교회 청년회



감사의 말씀

하성웅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EYCK 총무

이 장소를 마련해 주신 경동교회,
이 장소를 허락해 주신 경동교회 전 교인분들,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준비 해 주신 경동교회 교역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예배 반주를 맡아주시는 경동교회 이재림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에 관해 잠시 말씀 드립니다.
에큐메니칼 예배 형식에 맞추어 각 단체 및 교회가 맡아서 진행합니다.
봉헌 순서는 특별히 넣지 않았습니다.
청년학생들 자신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미를 새기고자 했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는 매년 2월 세계기독교학생총연맹 WSCF가 세계 기독교 학생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한국과 미얀마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드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제안해 주신 경동교회 채수일 담임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침묵함으로 2021년 세계 기독교청년학생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례의 예전

반주자 : 이재림 오르가니스트 (경동교회 집사)

순서자 : 하성웅 총무(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 입례송 - 다함께

입례송

홍성현

1. 이제 우리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니 주여 우리가운데로어서
 2. 서로 의 손길과웃음과위로를통해 주여당신이함께하심을

오소서 절망과고통속에있던우리상처입은영혼이시간
 느끼니 이제우리어디있든지무슨일을당하든지더는혼

당신께다내려놓겠습니다

❖ 예배의 부름과 기원 - 인도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일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말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 초대 말씀 - 다함께

인도자 :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을 세상이 심기 원하는 기독교청년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4.19혁명의 청년학생을 기억하며, 이들의 저항정신을 기념하고, 지금도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 미얀마 청년학생들을 향한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며,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 분은 우리에게 세상을 정의롭고, 용기 있게 살아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회 중 :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 경배찬송 -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 다함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L. Watt H. W. Greatorex 편 한국찬송가공회 역

1. 큰-영 광중 에 계 신 주 나- 찬 송합 니 다 -
 2. 한- 없 이 크 신 능 려을 나- 찬 송합 니 다 -
 3. 온- 천 저창 조 하 시던 그- 말 씀힘 있 어 -
 4. 그- 온 유하 신 주 음성 날- 불 러주 시 고 -

영원히 계신 주 이름 - 나 찬 송합 니 다 -
 창 되 고미 뿐 그 언약 - 나 찬 송합 니 다 -
 영원히 변치 않는 줄 - 나 믿 사옵 니 다 -
 그 품 에 품 어 주 시니 - 나 찬 송합 니 다 - 아 멘

(자리에 앉습니다.)

❖ 죄의 고백 _다함께

인도자 :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걷곤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평화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평화를 일그러뜨리기에 분주했고, 불의를 세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어긋난 세상을 보면서도 침묵했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연대하기보다는 나의 삶에 충실하기에 여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을 고민하지 않았고, 사랑과 평화를 입에 담으면서도 그것을 삶으로 번역하는데 힘쓰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당신의 길로 돌이키시어,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을 세상에 심는 기독청년학생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회 중 :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주여, 자비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 자비의 찬송 (3번 부릅니다) _다함께

자 비 베 푸 소 서 자 비 베 푸 소 서

자 비 베 푸 소 서 이 제 와 영 원 히

❖ 용서의 선언 _다함께

인도자 : 애통해하며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3~4절)

회 중 :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 시편교독 - 시편 72편

인도자 : 당신의 백성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약한 자의 권리를 세워주게 하소서.

회 중 : 높은 산들아, 너희 언덕들아, 백성에게 평화와 정의를 안겨주어라.

인도자 :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을 쳐부수고 약한 자들의 권리를 세워주며 빈민들을 구하게 하소서.

회 중 : 정의가 꽃피는 그의 날에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 넘치리라.

인도자 : 그는 하소연하는 빈민을 건져주고 도움 받을 데 없는 약자를 구해 주며

회 중 :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에 시든 자들을 살려주며

인도자 : 억울한 자의 피를 소중히 여겨 억압과 폭력에서 그 목숨 건져주리이다.

회 중 : 당신 홀로 놀라운 일 행하셨으니 야훼는 찬미 받으소서.

♣ 찬송 - 뜻 없이 무릎 꿇는 - 다함께

460 뜻 없이 무릎 꿇는 (통일 515)

보통으로

1. 뜻 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 요
2.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추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 듯이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 기 계 셔 셔

주 뜻이 이뤄지 이다 외 치며 사나니
그 팔로 막아 주 시어 정 의가 사나니 아 멘

말씀의 예전

✦ 미얀마를 위한 기도 _KSCF 김서현 학생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한 목요기도회 4월 8일 기도문 중에서)

말은이 : 하나님, 미얀마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군부의 무자비한 총칼에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다같이 : 불의한 권력자들의 악행이 멈출 줄 모르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주여,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옵소서.
주여, 당신의 사람들을 살리소서.

말은이 : 미얀마 시민들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을 넘어 온 힘을 다해 저항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 민주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자유와 인간존엄을 더 이상 박탈당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말은이 : 하나님,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여주옵소서. 탐욕스런 권력과 잔인한 폭압정치를 자행하는 이들로부터 평화와 상생을 꿈꾸는 시민들을 건져주옵소서. 이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다같이 : 하나님, 미얀마 땅에서 들려오는 탄식과 절규에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자행하는 반인륜적인 만행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아멘.

✦ 말씀선포 _KSCF 김서현 학생

아모스 5장 8절

질은 어둠을 아침으로 바꾸는 이,

그의 이름이 야훼시라.

❖ 찬양 - 정의가 강물처럼 - 다함께

♩ = 76

A D F#7 Bm B7 E E7

1.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2.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수난의 세월

A A7 D Dm A/E E7 A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보아라 우리 눈앞에 새하늘이- 활짝 열린다

D A B7 E7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우 - 우 - 우 - 우 -

A A7 D Dm A/E E7 A

번씩 일곱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아 - 념- 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 미얀마 상황에 대한 증언 - 지금 미얀마에서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한 기독교 행동 김민지 활동가 (NCKK 인권센터 사무국장)

❖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한 기도 - KSCF 김주민 청년

성만찬의 예전

집례자 : 채수일 목사

❖ 성만찬 초대

집례자 :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온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즐거운 잔치상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하여 고통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는 식탁입니다. 이 식탁을 통하여 우리는,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 안으로 모시어 들이게 됩니다. 이 식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시는 이 식탁으로 나아오십시오.

회 중 : 아멘.

❖ 성만찬을 위한 기도 _집례자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자리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함께 나누었던 자리이며, 세계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참여하여 믿는 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자리입니다.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저희 안에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이 만찬에 임한 후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거룩한 교제의 나눔

집례자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회 중 : 또한 목사님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집례자 :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회 중 :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집례자 :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눔과 섬김'의 향기가 그득하길 바랍니다. 그 향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회 중 : 아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 성령임재의 기원

집례자 : 주님, 부족한 저희가 주께서 베풀어주신 거룩한 식탁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식탁을 거룩하게 하시사 우리가 식탁을 대할 때마다 다시 주님의 계약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여주소서. 모든 예언자들에게 내리셨던 영이시여, 생명의 영이시여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가득 채워 주소서.

회 중 : 아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 성만찬 찬송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2, 4절

2.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 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4.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 제정의 말씀

(제정의 말씀을 할 때 모두 앞을 바라보세요.)

집례자 :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손으로 들어 쪼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야라." 식후에 같은 모양으로 그는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들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계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야라."

회 중 :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합니다.
아멘.

❖ 분병례

집례자 : (떡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회 중 : 이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자신을 나누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집례자 : (잔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음료가 되셨습니다.

회 중 : 이것은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시다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함 께 :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보혈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 하나님의 어린양 찬미

집례자 : 우리의 희생양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 중 : 세상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시여,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주께서 희생양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나누고 세상을 섬기는 순결한 양이 되게 하옵소서.

❖ 성만찬 참여 함께

❖ 성만찬 감사기도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지배하시며,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 평화, 그리고 정의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신 새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파송의 예전

순서자 : 박세론 총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청년회전국연합회

❖ 파송의 말씀 _다함께

인도자 :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기독청년학생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나누어 섬김으로 사역하신 모습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심는 일에 힘쓰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리시며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회 중 : 주님이 주신 용기와 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세상 가운데 심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 파송의 노래 _선한 능력으로 _다함께

선한 능력으로

Words & Music by
Bonhoeffer Dietrich & Siegfried Fietz

Kang Score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저 촛불 밝고 따스히 타올라 우리의 어둠 살라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해 물여네
 다 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 공동축복기도 _다함께

정의롭고 성실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의로운 길 앞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사이를 가득 채우는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미얀마 청년학생들과 비록 멀리 있지만 이곳에서 함께 지지와 연대의 마음으로 모이고 있는 기독교청년학생들과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 폐회송영 _찬양대 또는 후주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

미얀마 평화와 상생을 위해 일하고자 다짐한 에큐메니칼 공동체,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행동(이하 기독교행동)’은 지난 3월 종로 5가에 위치한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가지며 그 첫 출발을 내딛었습니다.



1부 기자회견



2부 목요기도회(증언: 경동교회 채수일 목사)

기독교행동은 현재 16에큐메니칼 공동체가(교회개혁실천연대 · 기독교사회선교연대 · 기독교청년아카데미 · 사)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 서울디아스포라교회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청어람ARMC · 성서한국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YWCA연합회 ·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 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합회 ·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 ·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 한국기독교장로회 · 청년회전국연합회 · NCKK인권센터/협력: NCKK국제위원회/정의평화위원회) 모여 현 사태에 대응하며 공동으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목요기도회

1974년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와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처음 시작된 목요기도회는 엄혹했던 독재시절, 한국사회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며 정권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으며 구속자들과 목회자, 평신도, 비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대하고 결단하는,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의 역사 속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기독교행동은 사안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목요기도회의 전통을 따라 매주 목



요일 오후 2시,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을 위한 목요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을 시작으로 현재 4차 기도회를 마쳤으며 오는 5차 기도회는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매주 군부의 유혈진압으로 희생된 이들, 가족과 동료를 잃고 텅 빈 가슴으로 살아가는 이웃들, 오랜 시간 갈등과 분열의 경계선상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삶의 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소수민족 무국적자, 난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주항쟁의 달, 5월에도 미얀마를 위한 기도의 자리는 계속됩니다. 5월 20일은 KSCF 주관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께서 많은 관심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교육 프로그램

미얀마 사태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가진 아시아 공동체의 역사적 맥락과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지속적인 연대와 소통, 장기적인 전망과 우리의 과제를 나누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미얀마 사회가 지나온 민주화의 과정 그리고 오늘 날에 이르는 쿠데타 상황까지 느린 발걸음으로 그러나 꾸준히 모여서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기독교행동의 회원단체인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에서 지난 3월 말, 재한미얀마청년연대를 초청하여 진행한 대화모임의 콘텐츠를 편집하여 오는 월요일 1차 교육자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강연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학습과 소통의 장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3. 나눔 활동

쿠데타에 저항하는 수많은 이들, 특별히 시위를 주도하는 청년학생 지도력들이 계속해서 군부의 총구에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동료를 잃고 슬퍼하는 이들, 당장 의료조치와 식량 지원이 간절한 이들이 미얀마 도처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나눔 활동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연대가 미얀마 시민들과 닿을 수 있는 일로써 즉, 우리의 마음을 모아 지원하는 일입니다.

기독교행동은 뜻을 함께 하는 이들과 헌금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1차를 시작으로, 3월 31일 2차, 그리고 3차 지원금을 바로 며칠 전 보냈습니다. 이는 미

안마교회협의회를(MCC) 통해 양곤에서 활동 중인 종교시민사회 그룹에게 전달되어 각 마을 공동체의 필요한 식량, 즉 쌀 구입비 그리고 시위 중 부상당한 이들을 위한 긴급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대 한국사회가 마주했던 서슬퍼런 독재의 시절, 경계를 넘어 온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정의 경험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며 계속해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행동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헌금 나눔 현황 2차 안내

모아주신 정성은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모든 시민들, 학생자 가족과 활동가들을 위한 긴급구호기금으로 쓰여집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3월 31일~4월 5일 기준) * 총액: 621만원

김해경 김미숙 정소영 대아중앙교회 김진희 조상희 이현주
전북금구교회 김현수 이정후 강보선 김은자 생명평화포럼
기장청년회전국 신동주 차경민 무명 진민경 이울선 허춘중
신주미 무명 김부창 동탄하이교회 이대영 이유민 고난함께
기장한빛교회 신대균 김혜숙

모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나눔운동은 계속됩니다.
 군부의 잔혹한 폭력에 저항하며 미얀마 곳곳에서 투쟁하는 시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정의 여정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나눔 계좌: 신한 140 013 285120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기독교행동의 활동은 미얀마 사태가 안정되고 시민들이 일상을 되찾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학생들과 아시아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여정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연대와 소통의 장이 지금, 여기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소개

경청 | 경동교회 청년

1. '경청'은?

경청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동교회 청년들의 신앙공동체, 다른 하나는 경청(傾聽)하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각 청년 주체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 개인, 공동체,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세상-이웃'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동체입니다.

2. '무엇'을 경청할 것인가?



- 1) 하나님과 나와는 '신앙생활'과 관련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귀 기울이며 배워가는 것입니다.
- 2) 이 관계를 바탕으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찰합니다. 이를 통해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의 변화를 지향합니다.
- 3)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가깝게는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멀리는 나와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합니다.

3. '누구'와 경청할 것인가?

20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청은 다양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4. '어떻게' 경청할 것인가?

'교회력'과 매년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 총회에서 정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한 해를 계획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신앙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 1) 예배하는 공동체
- 2) 열려있는 공동체
- 3) 참여하는 공동체
- 4) 공부하는 공동체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는 감리교회 청년들의 연합기관으로 청년들의 신앙생활의 증진과 차별과 혐오가 없는 교회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역으로는 청년주일, 사회선교, 분기별 세미나와 체험수련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리교회를 넘어 모든 청년들을 위해 일하는 감청이 되겠습니다.



기독청년아카데미

기독청년아카데미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사회를 섬길 기독청년들의 지도력을 공적으로 양성하고, 공동체적으로 파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기관입니다. 특히 캠퍼스 선교단체 및 리더, 지역교회 청년대학부 사역자들의 교육과 지원을 통해 하나님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려 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자생적 '연구-실천 공동체'를 생성시켜 가고자 합니다.

대학사회라는 지극히 특정한 정황에 적합하게 양육된 제자도는 졸업과 동시에 전혀 다른 생활 현장에서 그 역동성을 급속히 상실하기 십상입니다. '온전한 복음, 총체적 선교'를 다양한 생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도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성서, 철학, 역사, 경제, 문화 등을 통전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선교현장과 생활현장에서 하나님나라를 창출해 가고 있는 청년지도력들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사회 진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선교 전략은 많으나, 정작 대부분의 청년학생들이 살아가게 될 사회생활 현장에 대한 선교 전략은 지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독청년아카데미는 이를 위한 논의와 교육, 협력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신구약성서의 맥, 창조적 사상운동에 대한 신학적 성찰(유영모·함석헌·이현필·대천덕·김용기 등), 민중신학 비판적 성찰과 창조적 재해석 등 성서마당 강좌를 열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사, 종교개혁과 세계교회사, 현대 북한의 이해 등 역사마당 강좌와 기독교세계관, 기독교운동론, 현대철학 세미나, 사건의 철학과 과정철학, 동학/기학/동의보감 등 창조적 사상운동 연구 등 철학마당 강좌를 열어왔습니다. 성서/역사/철학 마당 강좌를 통해서 근원적인 통찰과 영감에 집중하면서도 창조적 해석과 실천을 중요시합니다. 단식/생채식 수련과 임신출산육아 강좌를 열었습니다. 시대우상이 우리들 삶에 틈타는 방식이 식의주락(食衣宙樂)과 같은 일상적 생활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생명평화마당으로 사회선교학교와 농생활, 역사통일탐방, 생명평화순례도 진행해왔습니다.

'공부-실천 공동체'로서 기독청년아카데미는 20~30대 청년들이 힘든 현실에서도 철저한 제자도로, 기독교세계관을 통해 기독교신앙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졸업 이후의 삶에 주목했습니다. 학생 때 제자훈련을 받았으나 졸업 이후 시대우상의 힘에 무력하게 휩쓸려가는 이들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학교, 졸업예비학교 강좌를 이어왔습니다. 법조계나 언론, 교육, 의료 등 전문인 영역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소개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방법론으로서 공동체운동을 강조했습니다. 현대도시문명, 금융자본주의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02-764-4116 누리집 www.lordyear.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rdyear2004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otong_daeen

장청 |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이하 '장청')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산하 자치단체로, 교회 중심의 노회 청년회연합회들과 함께 교단 소속 청년들이 기독청년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 합니다.

1921년 경북 안동 지역에서 안대선(W. Mallis Anderson)선교사를 중심으로 조직된 청년면려회(CE)는 1924년 '기독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 창립으로 공식적인 청년운동을 시작하였고, 이어 1949년 7월 7일 새문안교회에서 진행된 '장로회청년회 전국연합회' 창립총회를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로 출범하였습니다.

장청은 '평화의 사도 훈련'을 중심으로 통일희년운동, 교회갱신운동,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을 전개하며 보다 실천적이고 사회변혁적인 청년지도력을 육성하였고, 세계교회협의회, 세계선교협의회, 아시아기독교협의회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국제 에큐메니칼 운동에 협력해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68회 총회에서는 한국교회를 이끌어 갈 청년들의 사명과 책임을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매년 5월 셋째 주일을 청년주일로 제정하였고, 장청은 교단 산하 모든 교회에서 청년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합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15개 노회 청년회연합회가 조직노회로 남아 있으나, 지난 3월 정기총회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73회기 임원들은 '장청, 연결되고 결합되는 역사(엡4:16)'라는 주제를 따라 노회 청년회연합회와의 교류와 재건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국장청의 에큐메니칼위원회, 신학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의 대중화 및 필요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2월부터 한 해 동안 '청년발굴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청년빈곤, 성인지감수성, 마음건강, 정치, 생태와 같이 청년들이 당면한 6가지 삶의 영역과 신앙을 연결해보며 배움과 나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옥션 | 옥바라지 선교센터

옥바라지선교센터는 2016년, 옥바라지 골목의 재개발을 반대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며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 노점상인, 소상공인, 재개발/재건축 등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문제에 기독교인으로서 응답을 하며 연대하는 대표적인 기독교 도시운동단체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현재는 잘못된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에서 쫓겨난 노량진수산시장의 상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공간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들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 25:23

성경은 빈곤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개인의 노력이 아닌 공동체의 노력과 토지의 공공성, 생존권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아닌 교회로, 공동체로 모여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 옥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쫓겨남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를 위해 폭력적인 강제집행 제도의 폐지,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지속가능한 거주 영역으로 받아들여지는 세상, 소유권에 앞서 거주가 권리가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기청 |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1. 소개 : 기청? 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의 줄임말로 기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청년회 전국연합회는 각 교회 청년들이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소망하며 함께 성서를 연구하고 교육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2. 회원

본회의 회원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 소속 청년이라면 누구나 회원입니다. 조금 더 조직된 형태로 소개를 드린다면, 조직된 지역연합회의 회원을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이라면 누구나 기청의 준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3. 전국연합회가 하는 일

① 청년주일 : 1953년 총회결의로 개신교 최초로 청년주일을 제정하였습니다. 2021년 예순 여덟번째에 이르기까지 매년 3월 둘째주일을 청년주일로 제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주일을 통해 교회에서 청년 지도력이 개발되도록 하고 교회의 미래세대 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함께 살아내며 하나님나라를 일구는 그리스도인임을 되새기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② 지역연합회 조직지원

③ 소모임지원사업

④ 에큐메니칼 활동

1) 감수성기행 : 역사 감수성기행, 농촌 감수성기행, 젠더 감수성기행 등 살아가기 바쁜 현대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지속해서 추구해야 할 생명, 평화, 정의를 발걸음을 옮겨 배우는 기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에큐메니칼 트레킹

3) 사도학교 : 각 지역연합회와 위원회의 고유영역을 활성화하여 교육하는 장을 만듭니다.

4) 미조직연합회지원사업

5) 청년연합수련회

6) 오늘 이 땅의 사도행전 (홍보출판물)

7) 말씀성구카드 제작사업

3) 아이러브타이완 미션 (I LOVE TAIWAN ,MISSION)

4) 재일.한.일 공동연수

5) 마이너리티 유스포럼(Minority Youth Forum)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 EYCK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 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는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오이쿠메네, oikoumene)을 이 땅에 이루어 가고자 결단하는 기독교청년들의 연합운동단체입니다.

1970년대는 군사독재 아래서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들이 억압받았던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기독교청년들은 1976년 EYCK를 창립하여 70,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억압이 없는 민주적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이웃의 아픔에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활동했습니다.

더불어 한국교회가 예수의 길을 바르게 따르도록 애정 어린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고 교회의 교회다운 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생명과 평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교회와 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기독교청년들이 양성되도록 다양한 훈련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연합정신을 실현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청년회전국연합회, 기독교한국루터회 청년회연합회가 연대단체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기연 | 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합회

- ‘한기연’ (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합회)은 1992년 창립되었으며, 주로 수도권의 대학생 및 청년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로 잠깐 쉬고 있지만, 대학생 자원활동가들과 함께하는 발달장애아동 주말학교(토마토 학교) / 책모임(불신자회), 영화모임(도착 비디오여행) 등 소그룹 활동 /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활동(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관련, 미안마 민주화를 위한 모임 등)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설명 : 사회적 약자와의 각종 연대활동 / 영화모임, 책모임 / 토마토 주말장애아동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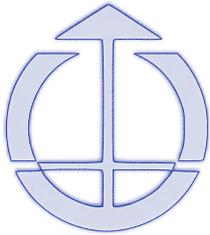
- 페이스북 : [hangiyeon1992](https://www.facebook.com/hangiyeon1992)
- 후원계좌 : 씨티은행 124-50831-240 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합회

(후원하기) (소식지 보기)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KSCF

안녕하세요,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KSCF(Korean Student Christian Federation)입니다.



나를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한국을 새롭게!

KSCF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 구세군대한본영, 기독교대한복음교회로부터 학원선교를 위임받아 활동하는 기독교학생운동단체입니다.

1948년 한국기독교학생회전국연합회(KSCF)로 창립되었고, 1957년 한국기독교학생회(KSCM)로 재창립 되었고 1969년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KSCF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에큐메니칼 신앙 아래, 참된 인간세계의 실현을 위하여 학원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증거하며 '한국을 새롭게'하려는 기독교청년학생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교학생의 세계관과 정체성을 세워가며, 역사와 사회 속에서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며, 세상과 변화를 향한 연대와 행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KSCF는 기독교청년학생들의 내적 힘을 키우고, 조직하고, 행동하는 운동으로, KSCF 대학 '성서와 실천'(격주 6개월 과정), 기독교세계관학교(매주 6개월 과정), 사회선교실천(격주 3개월 과정) 그리고 지역/학원/주제별 기독교학생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역 정기모임은 매주 월요일(달날) 늦은 7시 30분에 모입니다.

KSCF 공식 홈페이지 <https://kscf.online>

KSCF 청년학생간사 홈페이지 <http://cafe.daum.net/kscf2020>

NCCK 청년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위원회로서

에큐메니칼 청년지도력의 성장, 청년학생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 청년·학생 선교 프로그램 기획, 청년·학생 교육과 훈련을 도모하기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현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함께 하는 교단과 단체에서 파송된 32명의 위원들이 69회기 청년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으며,

청년 예배문 및 기도문 배포, 활동가 네트워크형성, 청년대화모임, 에큐메니칼 아카데미를 주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